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김종남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장

“호남·제주 소비자 주권시대 열겠다”

서울 가지 않고 중재·조정 지역민 불편 해소 이동상담·교육·시장 감시 소비자 권익 보호



상한 바이다. 또 영유아 중독사고, 면봉, 맥주 체인점 건포두, 수입 견과류 등 각종 실태조사를 벌여 소비자 안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왔다. 현재 광주본부는 호남·제주지역 방문·다단계 등 특수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와 2011년도 피해 다발 품목 사례를 분석중이다. 또 이달에는 전북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및 방문판매 이동상담을 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동상담을 계획중이다. 김 본부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 해성고, 전북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교육연구국, 분쟁조정위원회, 피해구제국 등에서 근무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개소식은 5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밀착형 소비자원을 만들어 지역 소비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남(47)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 초대 본부장은 “광주·전남에서 실질적 소비자 주권시대를 열게 됐다”며 “지역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과 연대해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소비자 교육, 지역 밀착형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업무를 개시한 광주본부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호남, 제주지역의 피해 구제 및 분쟁조정 등 지역 소비자 문제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호남·제주권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평균 200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상담만 광주 1만7855건, 전남 2만1238건 등 호남·제주권에서만 총 6만6980건이 접수되는 등 호남·제주지역의 소비자 문제가 해마다 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소비자들을 위한 단체가 많지만 대부분 서울에 편중돼 지역 소비자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다”며 “호남·제주 지역 소비자들도 서울까지 가지 않고 중재, 조정 등의 절차를 모두 광주에서 처리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피해현황 조사나 통계자료 분석이 미흡한 것에 대해 김 본부장은 “소비자 문제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책제안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전자담배 안전실태 조사를 벌여 각종 안전기준을 개정토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6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상을 수

사흘간 1만명...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인기

견본주택 연일 인파

커튼을 찢으면 한 눈에 펼쳐지는 영산강. 광주에서 영산강 조망이 가장 뛰어난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아파트가 인기다. 26일 제일건설에 따르면 지난 2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연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견본주택에 연일 인파가 물리고 있다. 개관 첫날 3000여명이 방문한 데 이어 주말·휴일 사흘간 1만여명이 다녀갔다. 이 아파트는 조망권이 광주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탁 트인 영산강 조망권과 수변공간이 연결돼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이덕에 이 곳은 지난해 분양 당시 187대 1이라는 경이적인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전용면적이 67㎡(27평)~84㎡(33평)로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관심을 더하고 있다. 여기에 인근 지역이 광주R&D



제일건설이 광주시 북구 첨단2지구에 공급하는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아파트가 지난 23일 개관한 견본주택에 사흘동안 1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제일건설 제공)

특구와 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 기대 효과도 높다. 교통·교육·생활 환경도 뛰어나다. 인근에 신용초교를 비롯해 지구 내 중·고교가 모두 위치해 있다. 롯데마트, CGV,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소품 및 문화시설도 풍부하다. 청약 일정은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2순위, 29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5일이다. 분양 문의 1577-181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H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1226가구 분양

2013년 11월 입주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오는 8월 광주·전남혁신도시 내에 공공분양 아파트 1226가구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나주 혁신도시에 처음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B2블록 지상 16~25층 7개동, B4블록 14~20층 8개동 등 2개 단지다. 전용면적은 74.84㎡(29~33평)로 B4블록 624가구, B2블록 602가구 등 총 1226가구다. 입주 예정은 각각 2013년 11월과 2014년 2월이다. 광주전남혁신도시는 총 732만7000㎡에 5만 인구를 수용할 대규모 사업지구로, 공공기관 15곳이 이전하게



B2블록 조감도



B4블록 조감도

된다. 지난해 4월 우정사업정보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12개 기관이 청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단지 내에는 총 21개 공동주택용지가 있고, 이 중 14개 블록이 민간 주택 건설업체에 매각됐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나주

혁신도시는 5만 인구를 수용하는 대규모 행정복합도시로 광주·전남의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환경 등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사업단 061-330-5522, 5524.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알바경험도 중요한 경력”

인사담당자 84% 인정...이력서 기입 권장

본격적인 공채시즌을 맞아 많은 신입구직자들이 자기소개서 쓰기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입구직자들의 사회경험이나 경력사항이 없어 아르바이트 경험도 경력이나 사회경험란에 적어도 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2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인사담당자 221명을 대상으로 ‘신입구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 평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4.4%가 신입구직자의 아르바이트 경험도 중요한 경력사항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에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체크하는지 물었더니(복수선택) △‘지원한 업무와의 부합성’(64.0%)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로 지원자가 얻은 점’(42.7%) △‘아르바이트 기간’(27.0%) 순이었다. 인사담당자는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해 본 구직자와 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 본 구

직자 중 어떤 쪽에 더 호감이 있을까. 5명 중 2명(41.2%)은 ‘모집직무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라고 답한 가운데, ‘한 직종의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해 본 구직자’(35.5%)를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다양하게 해 본 구직자’(23.3%)처럼 여러 직종을 짧게 경험한 것보다는 좀 더 선호했다. 지원직무와 크게 관계없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적는 것이 좋냐는 질문에는 ‘사회경험이므로 비워놓는 것보다는 적는 것이 좋다’(73.0%)는 응답이 ‘직무와 관계없는 경험은 소용 없으니 안 쓰는 편이 낫다’(27.0%)는 응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41.2%의 기업은 아르바이트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정규직으로 채용된 아르바이트 직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성실성(49.4%) △일에 대한 열정(18.4%) △사교성(13.8%) △업무능력(11.5%) △책임감(6.9%) 등을 꼽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아동센터 교육 지원 삼성 사회적기업

‘희망네트워크 광주’ 치평동에 개소

삼성의 세번째 사회적기업인 ‘(사)희망네트워크 광주’가 2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문을 열었다. (사진) ‘희망네트워크 광주’는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광주시에 30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희망네트워크 광주는 이들 아동센터에 전문강사를 배치해 인문학과 문화예술, 야간보호, 집중 돌봄 사업 등 4대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삼성은 사무국 직원 5명과 과학교사 70명 등 총 75명을 채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첫 사업으로 동구 소재 동 지원지역 아동센터에서 조은숙 전남대 교수의 인문학 강의가 진행됐다. 박남기 이사장은 “대기업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의 모델”이라며 “광주지역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박남기 이사장(광주교대 총장)과 채동석 삼성전자 고문, 지역아동센터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무역상사협의회 오늘 정기총회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무역상사협의회(회장 김봉길·삼각FMC 대표)는 27일 오전 11시 광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는 광주·전남지역 무역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와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의 올해 사업 계획, 광주시 무역·통상진흥시책 설명회

등이 진행된다. 특히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해외전시회 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액을 업체당 600만원으로 늘려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19.19 (-7.64)
코스닥지수	523.39 (-4.08)
금리 (국고채 3년)	3.62% (-0.02)
원·달러 환율	1,141.60원 (+6.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L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중이 울리면 따뜻한 음식이 나옵니다.
당신께 드리는 맛의 사치

2012년 CUSCUS ART HOUSE

쿠스쿠스 패밀리레스토랑

광주 수원점 광주 신세계점 광주 상무점

062-371-0011 062-360-1981 062-383-3839

쿠스쿠스 광주 수원점
체인점문의 062-371-0011
체인점지역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광주상무점 OPEN!